

출판의 문화적 신념은 무엇인가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전반적으로 보아 최근 우리 출판의 문화적 신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만하다. 책이 정말 인간정신의 기반이며, 사회적 삶의 표현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양의 상징인가. 그리고 이 최선의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출판인가. 그렇게까지 확대하지는 않더라도 출판물 그 자체로서는 또 완성된 제품인가. 우리만 해도 이제는 '제조물 책임법'을 시행해야겠다는 단계에 왔으므로, 최소한 인쇄물로서의 책임은 다하고 있는가. 이런 좀 작은 문제 역시 점검해볼 만하다.

느닷없이 무슨 이야기인가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요즘 나는 출판시장에서 매우 쓸쓸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어느 것들에서인가. 우선 문고판의 힘든 싸움에 있다. 출판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저변을 만드는 것이 문고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리고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문고판 시대가 열리고 있다. 프랑스 갈리마르는 영상시대에 도전하는 새 책들을 문고판으로 도전한다. 하지만 우리 문고판들은 좀처럼 반응이 없어 보인다. 올해만 해도 여러 출판사가 심혈을 기울였지만 승부가 유리하게 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사실상 명백하다. 책읽기의 기초가 없고 따라서 생활의식의 하나로 책이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고판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수시로 잠시 쉬고 있는 시간, 역시 쉬고 있는 손에 습관적으로 책을

취고자 하는 감수성이 있어야만 보급이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형서점에 가서 느끼게 되는 좀 미학적인 절망감 같은 것이다. 책은 많다. 그러나 모든 책이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이것은 기획·내용·디자인들에 있어 다 같은 현상이다. 기획에서는 어느 한 아이템이 성공을 하면 잠깐 사이에 그 비슷한 아이템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으로써 더 비슷해지고 있다.

내용은 알기 쉽게 쓴다는 풍조와 좀더 간단하게 요약해준다는 방법에 의해 비슷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디자인은 아예 책의 내용이나 성격을 무시하고 그저 아기자기와 예쁘게 만들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런 비슷함 속에 베스트셀러를 이루는 중심목록은 또 대중적 인물들이 쓴 신변이야기 수필들이 점거해가고 있다. 언뜻 보면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출판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 어떤 힘과 주축도 없다는 허망함이 있다.

이 허망함이 중앙에 크게 자리하기 때문에 때로 정말 말이 되는 책이 한 권 등장해도 곧 묻혀버린다. 그리고 이 문힘은 독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이유로 더 확실하게 잊혀진다.

대안은 무엇인가. 불가능한 대안은 있을 수 있다. 책다운 책, 출판다운 출판물만 어떤 욕을 먹더라도 따로 뽑아 작은 공간에서나마 독립적으로 전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 일은 새로운 분쟁이 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출판내용은 차치하고 책만들기에서나 출판다움의 창조적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하나의 불가능한 대안을 적으려 한다. 지금 책만들기의 기본 자재들은 대부분 여타 분야에서 쓰던 것들의 잔여분들이다. 우선 종이만 생각해보자. 아직까지도 우리에게선 도서 인쇄용지라는 게 있어 보지 않았다. 신문용지나 잡지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써왔고, 그것도 제지회사에서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온갖 잡종용지를 써왔다.

하지만 타국의 책 용지들을 보라. 일본도 서들은 때로 오직 책 용지의 질감에 빨려들어 책 한 권을 사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책과 미국 책 사이에서도 용지는 다른 느낌을 준다. 그리고 들고 볼 책은 가볍다. 책상 위에 놓고 볼 책은 무겁다. 이 모든 것이 용지의 특성과 선택의 문제다.

용지 하나만이라도 책문화다운 것을 사용하고, 그 용지만으로도 책을 사게 하는 능력이 곧 책의 위대함을 구축하고 책의 완제품을 인식시키는 발화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만하다. 책은 아무 내용이나 담아서 아무 재료로나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어야 옳다. ◆

출판저널

통권 제202호/1996년 11월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연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욱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책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항구한 평화, 이제는 이상향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수정 사회주의 민주주의 해방과
수정 사회주의 세계 혁명 정치 계몽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에두아드 베른슈타인의 비판과 그 이념사적 전제

이 책은 19세기 말에 형성된 수정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사적 연구이며, 주석에는 마르크스주의나 수정 사회주의와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가 소개되어 있어 참고 도서로도 가치가 있다. 보쿠스타프손 지음/홍성방 옮김 신국판/522면/15,000원/정화

왜 자유는 관찰되는가?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도덕으로 지배하고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법을 통하여 법을 집진적으로 관찰·개변시키려는 역사이다. 따라서 인류에 보편적으로 확산될 자연적인 경향이 내포되어 있는 민주주의 혁명은 세계 혁명이다. 마르틴 크렌레 지음/홍성방 옮김 신국판/228면/12,000원/정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변론

인권과 권력 분리와 민주주의는 민주적 헌법 국가의 핵심을 형성하는 제도의 일체이며 해방의 계몽주의적 이념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한 계몽주의적 해방을 위한 투쟁은 승리를 획득할 세계적인 운동인 것이다. 마르틴 크렌레 지음/홍성방 옮김 신국판/312면/4,500원/정화

독일 새문 100-360 서울시 중구 중림동 149-2 전화 (02)3609-150/팩스 393-8554

품위있는 책을 만드시렵니까!! 센스있는 표지부터 구상하십시오



아무리 내용이 좋은 良書라도 表紙의 뛰어난 센스가 표출되지 않으면 독자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Creative Design
SenseBook

서울·중구 충무로3가 24-12 본고B/D 6층 TEL:274-2917 FAX:269-4053